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 생활 적응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고미숙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Mi-Suk Ko(marunbee@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3개의 4년제 간호대학 1, 2학년 학생이며,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beta=.431, p<.001$), 자아탄력성($\beta=.225, p<.001$), 전공만족도($\beta=-.178, p=.002$), 학교성적($\beta=.170, p=.002$), 대인관계($\beta=.167, p=.003$), 성별($\beta=-.167, p=.003$)로 53.9%의 설명력을 보였고, 감성지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함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외 활동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자아탄력성 | 감성지능 | 스트레스 대처방식 | 대학생활 적응 |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158 freshmen & sophomores attending three nursing colleg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7 to November 7, 2014,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1.0 program.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for college adjustment with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In addition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school record,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personal relations, gender accounted for 53.9% of variance in college adjustment. The strongest predictor of college adjustment was emotional intellig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is important to college 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program to integrate the educational curriculum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 keyword : | Nursing Students | Resilience | Emotional Intelligence | Coping | Adjustmen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 적응이란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으로[1]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처할 수 있는 발달과제인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과 결과물[2]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효과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이 된다[1]. 하지만 적응의 어려움이나 부적응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주어 불안, 좌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서와 사고에 빠지게 한다[2][3]. 그로인해 학업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휴학, 자퇴 등 학업중단을 결정하게 되므로 개인적,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적자원 양성 및 개발에 문제가 될 수 있다[3].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은 간호 인력의 질적인 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4]. 간호대학생은 인문사회과학의 교양과 전공학문, 교과외 활동 등이 통합된 학습성과 기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습득해야만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엄격한 윤리의식 함양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받게 된다[5].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짙어진 학사일정과 과중한 학습량, 다양한 수업방식, 교과목마다 해야 할 많은 과제, 교수의 높은 학습 요구,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 등으로 학업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하고 학과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한다[4][6].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간관계, 임상실습, 국가고시 준비,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부담 등으로 대학생활 적응이 더 어려워지므로[7][8] 대학생활 초기인 1, 2학년 시기부터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간호대학 신입생 혹은 2학년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9], 자아존중감, 감성지능[10], 대처방식[8][9], 심리적 안녕감[8], 진로정체감[11] 등이 보고되고 있고, 이들이 곧 경험하게 될 임상실습 스트레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8]. 점차 간호대학의 학제가 3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3년제 간호대학의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7][10][12]에 비해 4년제 간호대학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인 임상실습 전 단계에 해당하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영향을 연구해 보는 것은 성공적인 적응과 더불어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설정하였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조절능력이며, 변화하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과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요소이므로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9]. 개인은 적응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나 주변 자원을 찾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적응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한다[8]. 대학생활 적응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유사하고 대학생의 적응 정도가 높아질 때 우울 수준이 낮아지게 되므로[13]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나 외부환경에 적응을 잘 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며 우울 등을 잘 견딜 수 있다[14][15].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16]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17],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요인[14][15]으로 학습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역동적인 요인이기도 하다[16]. 간호대학생이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개인적인 자원인 자아탄력성과 함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8].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 훈련받는 간호대학생은 환자, 보호자,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실한 공감능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지능을 대학시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성지능은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며 [7][10][19],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지만[20]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1][22].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감성지능이 높아지면 자아탄력성이 함께 높아지므로[21][23] 이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개발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년제 간호대학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 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2.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4년제 3개 대학을 임의 표집한 후,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K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1406-SB-004-01) 승인을 받은 후,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여 편의표집된 1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보조원에 의해 곧 바로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배부된 설문지 160부 중 158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수거율은 98.7% 이었다.

G *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95, 예측변수의 수가 11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52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율을 고려하여 1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158명을 최종 대상자수로 결정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자아탄력성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저자 동의와 받고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76,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7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도 .67 이었다.

3.2 감성지능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 도구를 황필주(2007)가 번안한 도구로, 도구 사용에 대한 저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의 4개 하위요인과 각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7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4 이었다.

3.3 스트레스 대처방식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2002)이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K-CSD)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회피 중심 대처의 총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별 11문항씩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았음' 1점에서 '많이 했음'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혜진(2002)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4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6 이었다.

3.4 대학생활 적응

정은이와 박용한(2009)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저자의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 등 전체 5개 영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7 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취약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수가 아닌 연구보조원이 직접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설문조사 비참여 시 불이익이 없음, 설문 결과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연구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설문조사의 보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원하는 학생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사례를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의 자발성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집된 자료 또한 연구보조원에 의해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코딩한 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9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학년 39.2%, 2학년 60.8% 이었다. 평균 연령은 20.8세이고, 종교를 가진 대상자 75.9%, 대인관계 좋음 65.8%로 가장 많았다. 학점은 3.0 이상-3.5 미만 46.2%, 3.5 이상-4.0 미만 31.0% 순이었고, 입학 시 수능 점수는 평균 3등급 이상-4등급 미만 44.3%, 2등급 이상-3등급 미

만 36.7% 순이었다. 전공 선택 이유는 자발적 동기 42.4%, 전공 만족도는 만족함 55.1%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8)

특성	n(%)	Mean± SD
성별	남	14(8.9)
	여	144(91.1)
학년	1학년	62(39.2)
	2학년	96(60.8)
연령	20 yr	69(43.7)
	21 yr	64(40.5)
	22 yr	15(9.5)
	23 yr	6(3.8)
	24 yr≤	4(2.5)
종교	유	120(75.9)
	무	38(24.1)
대인관계	매우 좋음	30(19.0)
	좋음	104(65.8)
	보통	24(15.2)
학교성적	< 3.0	24(16.2)
	3.0 ≤ - < 3.5	73(46.2)
	3.5 ≤ - < 4.0	49(31.0)
	4.0 ≤	12(7.6)
수능성적	1-(2 등급)	14(8.9)
	≥2-(3 등급)	58(36.7)
	≥3-(4 등급)	70(44.3)
	≥4-(5 등급)	13(8.2)
	5등급 이하	3(1.9)
전공선택 이유	취업의 용이성	53(33.5)
	고등학교성적	3(1.9)
	타인의 권유	32(20.3)
	자발적 동기	67(42.4)
	기타	3(1.9)
전공만족도	매우불만족	3(1.9)
	불만족	7(4.4)
	보통	40(25.3)
	만족	87(55.1)
	매우만족	21(13.3)

2.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 기준 평균 2.85(점±0.36) 이었다. 감성지능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3.57점(±0.44) 이었고 하위요인은 감성조절 3.62점(±0.47), 감성활용 3.41점(±0.66), 자기감성이해 2.96점(±0.41), 타인감성이해 2.74점(±0.50) 순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3점 만점 기준 평균 2.10점

(±0.22) 이었고, 하위요인 분석 결과 문제해결 중심 대처 2.22점(±0.24), 회피 중심 대처 2.13점(±0.29),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1.99점(±0.28) 순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30점(±0.51),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3.76점(±0.60), 진로준비 3.71점(±0.72), 개인심리 3.12점(±0.69), 사회체험 2.95점(±0.87), 학업활동 2.85점(±0.71) 순이었다[표 2].

표 2.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 (N=158)

변수	하위요인	Mean± SD
자아탄력성		2.85±0.36
감성지능	전체	3.57±0.44
	자기감성이해	2.96±0.41
	타인감성이해	2.74±0.50
	감성조절	3.62±0.47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활용	3.41±0.66
	전체	2.10±0.22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해결 중심	2.22±0.24
	사회적 지지 추구	1.99±0.28
	회피 중심	2.13±0.29
대학생활 적응	전체	3.30±0.51
	대인관계	3.76±0.60
	학업활동	2.85±0.71
	진로준비	3.71±0.72
	개인심리	3.12±0.69
	사회체험	2.95±0.8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종교(t=2.783, p=.007), 대인관계(F=3.477, p=.033), 전공만족도(F=4.669, p=.001) 이었다.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가 보통보다,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만족한다는 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았다.

감성지능은 종교(t=2.652, p=.011), 학교성적(F=2.686, p=.049), 전공만족도(F=4.310, p=.002)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점이 4.0 이상인 대상자가 3.0 이하인 대상자보다 감성지능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았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N=158)

개념	범주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Mean±SD	t/F (p)	Mean±SD	t/F (p)
성별	남	2.90±0.35	.568	3.61±0.39	.446
	여	2.84±0.36	(.578)	3.57±.45	(.662)
학년	1학년	2.85±0.34	.140	3.58±0.47	.089
	2학년	2.84±0.36	(.889)	3.57±0.42	(.929)
연령	20 yr	2.86±0.37		3.57±0.48	
	21 yr	2.83±0.37		3.60±0.40	
	22 yr	2.82±0.29	.349	3.37±0.49	1.388
	23 yr	2.99±0.32	(.845)	3.61±0.21	(.241)
	24 yr ≤	2.91±0.35		3.89±0.16	
종교	유	2.89±0.36	2.783	3.63±0.40	2.652
	무	2.72±0.31	(.007)	3.39±0.51	(.011)
대인관계	매우 좋음 ^a	2.97±0.41	3.477	3.68±0.53	
	좋음 ^b	2.84±0.33	(.033)	3.54±0.40	1.192
	보통 ^c	2.72±0.34	a)c.	3.55±0.49	(.306)
학교 성적	< 3.0	2.82(0.35)		3.380±.53	
	3.0≤-(3.5	2.82(0.30)	1.244	3.57±0.36	2.686
	3.5≤-(4.0	2.86±0.41	(.296)	3.61±0.51	(.049)
	4.0≤	3.03±0.47		3.80±0.33	a(d)
수능 등급	1-(2 등급	2.82±0.34		3.51±0.48	
	≥2-(3 등급	2.86±0.34		3.66±0.41	
	≥3-(4 등급	2.83±0.35	.262	3.51±0.58	.975
	≥4-(5 등급	2.93±0.47	(.902)	3.58±0.46	(.423)
	5등급 이하	2.90±0.48		3.44±0.22	
전공 선택 이유	취업의용이	2.78±0.34		3.45±0.45	
	성적	3.02±0.11		3.48±0.24	
	타인의 권유	2.84±0.33	.946	3.63±0.49	2.249
	자발적 동기	2.89±0.39	(.439)	3.66±0.39	(.066)
	기타	2.93±0.36		3.23±0.65	
전공 만족도	매우불만족 ^a	3.05±0.33		3.56±0.38	
	불만족 ^b	2.84±0.34	4.66	3.15±0.57	4.310
	보통 ^c	2.79±0.28	(.001)	3.48±0.48	(.002)
	만족 ^d	2.80±0.36	c,d,e	3.58±0.50	b,c,e
	매우만족 ^e	3.13±0.37		3.84±0.50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요인 중 문제해결 중심 대처가 종교($t=2588, p=.011$), 전공만족도($F=3.153, p=.016$)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t=-2.713, p=.015$), 종교($t=2.581, p=.014$), 대인관계($F=7.843, p=.001$), 학교성적($F=8.129, p<.001$), 전공 선택 이유($F=2.559, p=.041$), 전공만족도($F=9.635, p<.001$) 이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점이 4.0 이상인 경우가 3.0 이하이거나 3.5 에서 4.0 인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더 높았다.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가 만족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표 4].

4.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은 감성지능($r=.60, p<.001$), 자아탄력성($r=.47,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요인인 문제해결 중심 대처($r=.32, p<.001$),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r=.18, p=.022$), 회피 중심 대처($r=.21, p=.008$)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감성지능($r=.43, p<.001$), 문제해결 중심 대처($r=.24, p=.003$),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r=.19, p=.020$)과 감성지능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r=.31, p<.001$),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r=.18, p=.025$), 회피 중심 대처($r=.16, p=.047$)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종교, 학교성적, 대인관계, 전공 선택 이유, 전공만족도 등의 6개 변수 및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문제해결 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회피 중심 대처방식을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영향 요인 중 일반적 특성의 성별, 종교, 전공 선택 이유,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는 더미변수로 전환한 후 독립변수로 선택한 변수들을 모두 넣어 단계적(stepwise)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가 .786~.973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28~1.272로 기준 값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다. Durbin-Watson은 1.665로 0 또는 4에 가깝지 않고 기준 값인 2에 가깝기 때문에 잔차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1.593,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53.9% 이었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 (N=158)

개념	범주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문제해결중심대처		사회적지지 추구대처		회피 중심대처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성별	남	2.21±0.23	-.138	1.95±0.26	-.928	2.06±0.33	-.888	3.00±0.41	-2.713
	여	2.21±0.24	(.891)	2.00±0.28	(.531)	2.14±0.28	(.376)	3.32±0.51	(.015)
학년	1학년	2.19±0.24	-1.257	1.99±0.25	-.048	2.15±0.26	.737	3.37±0.49	1.529
	2학년	2.24±0.24	(.211)	1.99±0.29	(.962)	2.12±0.31	(.462)	3.25±0.52	(.129)
연령	20 yr	2.21±0.24		1.98±0.24		2.14±0.26		3.29±0.51	
	21 yr	2.19±0.23		1.95±0.27		2.10±0.29		3.29±0.53	
	22 yr	2.31±0.27	1.172	2.16±0.35	2.133	2.18±0.28	.869	3.26±0.45	.074
	23 yr	2.23±0.19	(.325)	2.07±0.39	(.079)	2.12±0.48	(.484)	3.33±0.62	(.990)
	24 yr≤	2.36±0.35		2.09±0.31		2.34±0.32		3.41±0.29	
종교	유	2.24±0.25	2.588	2.01±0.28	1.092	2.14±0.28	1.142	3.35±0.50	2.581
	무	2.12±0.21	(.011)	1.95±0.28	(.276)	2.08±0.28	(.255)	3.12±0.51	(.014)
대인관계	매우 좋음 ^a	2.27±0.24	1.107	2.02±0.30	.271	2.22±0.28	1.962	3.61±0.60	7.843
	좋음 ^b	2.20±0.24	(.333)	1.99±0.28	(.763)	2.12±0.30	(.149)	3.23±0.46	(.001)
	보통 ^c	2.22±0.24		1.965±0.24		2.08±0.24		3.17±0.51	a)b,c
학교 성적	< 3.0	2.21±0.28		1.950±.31		2.07±0.34		2.95±0.46	
	3.0≤-(3.5	2.19±0.22	1.284	1.99±0.27	.283	2.15±0.28	.473	3.26±0.43	8.129.
	3.5≤-(4.0	2.22±0.25	(.282)	2.02±0.27	(.837)	2.13±0.26	(.702)	3.42±0.57	(.001)
	4.0≤	2.34±0.25		1.98±0.27		2.14±0.34		3.68±0.37	a<c<d
수능 등급	1-(2 등급	2.23±0.28		1.97±0.33		2.17±0.32		3.33±0.57	
	≥2-(3 등급	2.26±0.25		2.05±0.29		2.13±0.31		3.31±0.52	
	≥3-(4 등급	2.17±0.23	1.356	1.95±0.26	.969	2.09±0.27	1.315	3.27±0.52	.109
	≥4-(5 등급	2.27±0.23	(.252)	1.97±0.27	(.426)	2.28±0.25	(.267)	3.32±0.46	(.979)
	5등급 이하	2.21±0.05		2.00±0.36		2.03±0.29		3.33±0.48	
전공 선택 이유	취업의용이	2.21±0.24		1.95±0.25		2.08±0.26		3.15±0.54	
	성적	2.24±0.52		2.15±0.60		2.09±0.40		3.19±0.45	
	타인의 권유	2.20±0.23	.230	2.06±0.29	1.339	2.25±0.31	1.963	3.29±0.50	2.559
	자발적 동기	2.23±0.24	(.921)	1.98±0.28	(.258)	2.11±0.29	(.103)	3.43±0.48	(.041)
전공 만족도	기타	2.12±0.29		2.15±0.14		2.18±0.00		3.09±0.34	
	매우불만족 ^a	2.36±0.18		2.09±0.16		2.15±0.19		3.05±0.65	
	불만족 ^b	2.34±0.27		2.13±0.35		2.30±0.18		3.02±0.50	9.635
	보통 ^c	2.15±0.21	3.153	1.92±0.23	1.941	2.11±0.27	.870	3.04±0.51	(.001)
	만족 ^d	2.20±0.25	(.016)	1.99±0.29	(.106)	2.11±0.31	(.483)	3.32±0.40	a,b,c(e)
매우만족 ^e	2.35±0.21		2.09±0.27		2.18±0.24		3.78±0.50		

표 5.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N=158)

변 수	자아 탄력성	감성 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 해결 중심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 중심
			r(p)		
감성지능	.43 (.001)				
문제해결 중심 대처방식	.24 (.003)	.31 (.001)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19 (.020)	.18 (.025)	.47 (.000)		
회피 중심 대처방식	.12 (.130)	.16 (.047)	.52 (.001)	.53 (.001)	
대학생활 적응	.47 (.001)	.60 (.001)	.32 (.001)	.18 (.022)	.21 (.008)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감성 지능($\beta=.431, p<.001$), 자아탄력성($\beta=.225, p<.001$), 전공만족도($\beta=-.178, p=.002$), 학교성적($\beta=.170, p=.003$), 대인관계($\beta=-.167, p=.003$), 성별($\beta=-.167, p=.003$) 등이었다. 즉,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경우가 만족 이상이거나 불만족 이하인 경우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도가 낮음을 의미한다[표 6].

표 6.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58)

변수	S.E.	β	t	p
constant	.314		1.021	.309
감성지능	.071	.431	7.057	<.001
자아탄력성	.087	.225	3.718	<.001
학교성적	.036	.170	2.974	.003
전공만족도 ⁵	.065	-.178	-3.215	.002
성별 ⁶	.098	-.167	-3.038	.003
대인관계 ⁷	.072	.167	3.009	.003
Adj R ² =.539 F=31.593 p<.001				

Dummy variables: 성별⁶ (남=1, 여=0), 전공만족도⁵ (보통=1, else=0), 대인관계⁷ (매우 좋음=1, else=0)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1, 2학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차원적인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8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은정과 박영숙의 2.80점[21], 박진아와 이은경의 2.72점[9], 박영숙과 권원희의 2.80점[24]과 유사하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은혁과 이웅택의 2.87점[25]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일반적 특성 중 종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17][20]를 지지하지만 성별[9], 연령[24]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2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는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 점수가 20-22세 군 2.77점, 26-29세 군 3.0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22세 이하가 93.7%를 차지하여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21]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3.57점으로 정경순의 3.65점[19]과 유사하며, 간호대학 2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의 3.39점, 3년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10] 3.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의 점수는 감성조절, 감성활용,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이 간호학에 입문을 하였지만 이론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인관계가 중요한 간호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인감성이해의 점수가 저조한 부분을 주목하여야 하며 이를 향상시키고,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은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임상실습 이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도구와 척도를 사용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학년별로 차이를 알아보고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종교, 학교성적, 전공만족도가 감성지능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송주은과 채현주의 연구[22]는 성별에 따라 감성지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의 점수가 낮은 반면 신은정과 박영숙의 연구[21]는 남학생의 점수가 높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남학생들의 표본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반복연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수림과 배정아[27]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증가하고, 특히 감성활용이 학업적응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선행연구 결과[22][28]는 학교성적이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감성지능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요인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 2.22점, 회피 중심 대처 2.13점,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1.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성경과 최연실[29]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2.56점, 문제해결 중심 대처 2.52점, 회피 중심 대처가 1.93점인 결과와 달리 사회적 지지 추구나 문제해결 중

심 대처방식의 점수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다소 낮고 회피중심 대처는 높은 차이를 보였다. 다른 도구이기도 하지만 문제 중심의 대처를 정서 중심의 대처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송주은과 채현주의 연구[22]와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점수가 낮은 것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과와의 입학과 더불어 과중한 학업의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견디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멘토-멘티제, 지도교수와 의 정기적인 면담 등이 좀 더 확산되고 정착된다면 정서적 지지 뿐만 아니라 정보나 물질적 지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 활용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 연령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0][31]와 달리 본 연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종교와 전공만족도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하부 요인인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긍정적인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 기준 3.30점으로 간호대학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32]의 3.23점과 비슷한 수준이나 3, 4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의 2.94점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8]의 3.09점, 4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의 3.06점,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의 2.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종교적 영성이 높을 때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높다는 김정희[36]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91.1%이었고,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75.9%를 차지하는 특성과 자발적 의지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42.4%로 최지혜와 박미정[6]의 30.9%, 이경완 등[32]의 35.2% 보다 높은 것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고 3, 4년제 간호대학 학제 간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성지능($r=.60, p<.001$), 자아탄력성($r=.47,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요인인 문제해결 중심 대처($r=.32, p<.001$), 회피 중심 대처($r=.21, p=.008$),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r=.18, p=.022$)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고,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제해결 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곽윤경의 연구[14]에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 내적인 요인인 자존감, 자아탄력성이 외적인 요인인 사회적 지지보다 높은 관련을 보인다고 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감성지능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19][21], 대학생활 적응과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양의 상관관계[9],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4]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교성적, 대인관계, 성별이 53.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1.593, p<.001$). 특히 감성지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beta=.431, p<.001$) 감성지능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는 최순옥 등[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대학교 저학년의 경우 감성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노수림과 배성아[27]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감성지능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좀 더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33],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사용은 대학생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및 대학환경적응을 더 잘 하도록 도와준다[34].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의 향상과 더불어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학습하는 것이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탄력성 뿐만 아니라 감성지능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잠재적인 적응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35],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관성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교육에 의해서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성찰, 정기적인 심리상담, 치료적 의사소통 실습 등 단계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향상시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와 학교성적 또한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최순옥 등[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낮은 것 또한 고려하여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과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조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감성지능을 증진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높이며, 스트레스와 역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정기적인 교수 면담, 진로 탐색을 위한 각종 특강과 멘토링, 학과 동아리 활동 등의 교과외 활동의 확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본 연구결과는 종교성과 영성이 개인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36]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 결과[37]와 의미있는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특수성을 감안하고 영적안녕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윤순영과 민신홍[15]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종교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 동아리 활성화와 같은 종교성과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생활 적응 프로

그램에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자칫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과 지원은 과중한 학업 및 전공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하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함양과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3개 간호대학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간호 대학생에게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도구의 신뢰도가 낮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민감하게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1, 2 학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교성적, 대인관계, 성별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감성지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은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더불어 다양한 교과외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지원과 정책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은 교육 커리큘럼과 교과외 과정에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감성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감성지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도구와 척도를 사용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1] 이숙정, 유지현,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 제22권, 제3호, pp.589-607, 2008.

[2] 정은아, 박용한, “대학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제21권, 제2호, pp.69-92, 2009.

[3] 홍계옥, 강혜원,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제10권, 제1호, pp.69-81, 2009.

[4] 김은아, 박경임, “간호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34-243, 2014.

[5] 고자경, 정명실, 최명애, 박영임, 방경숙, 김정아 등, “간호역량 규명을 위한 문헌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663-674, 2013.

[6]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7] 최순옥, 박진경, 김상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82-189, 2015.

[8] 김은아, 장금성,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예측모형 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312-322, 2012.

[9]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67-276, 2011.

[10] 정호주, 정향인,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188-196, 2012.

[11] 조인영,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5권, 제5호, pp.2937-2945, 2014.

[12] 최효진, 이은주,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61-268, 2012.

[13] 김정엽,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우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제4호, pp.243-263, 2008.

[14]곽윤경,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178-2186, 2013.

[15] 윤순영, 민신홍,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2호, pp.395-403, 2014.

[16] 지은주, 방미란, 전혜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571-579, 2013.

[17] 이은경, 박진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pp.293-303, 2013.

[18] C. S. Wong and K. S. Lo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243-274, 2002.

[19] 정경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케어매지저먼트연구, 제10호, pp.165-183, 2013.

[20] P. N. Lopes, M. A. Brackett, J. B. Nezlek, A. Schütz, I. Sellin, and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 No.8, pp.1018-1034, 2004.

[21] 신은정, 박영숙,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

- 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5636-5645, 2013.
- [22] 송주은, 채현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4호, pp.502-512, 2014.
- [23] 최지현,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4] 박영숙, 권윤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문제 해결과정 및 임상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41-350, 2013.
- [25] 박은혁, 이웅택,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 pp.5-30, 2013.
- [26] 이의선, 구미옥,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2749-2759, 2013.
- [27] 노수림, 배성아, “대학생의 정서지능, 학습몰입,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343-362, 2014.
- [28] R. Fernandez, Y. Salamonson, and R. Griffiths,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year accelerated graduate entry nursing student,” J. of Clinical Nursing, Vol.21, No.23-24, pp.3485-3492, 2012.
- [29] 조성경, 최연실, “남녀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제22권, 제1호, pp.53-74, 2014.
- [30] 유계숙, 신동우,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pp.3489-3869, 2013.
- [31] 이승현, *남녀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전략, 분노표현양식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2]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5-27, 2013.
- [33] 박완주, 한지영,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구조방정식 모형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65-375, 2011.
- [34]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제10권, 제2호, pp.1-25, 2011.
- [35]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and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31, No.8, pp.855-860, 2011
- [36] 김정희, “대학생의 영성과 대학생활 적응”, 임상사회사업연구, 제6권, 제1호, pp.5-23, 2009.
- [37] 이윤미, 이지희, 이지혜, 김소린, 이상민, “내재적 종교성향과 교직 헌신도와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제26권, 제2호, pp.179-200, 2014.

저 자 소 개

고 미 숙(Mi-Suk Ko)

정회원



- 1992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과정 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중환자간호, 성인간호